

인티파다와 팔레스타인 문학

송 경 속
한국외대

◁ 목 차 ▷

- I. 서론
- II. 인티파다 - 돌의 전쟁
- III. 인티파다와 팔레스타인 시
- IV. 인티파다와 팔레스타인 단편소설
- V. 인티파다와 팔레스타인 장편소설
- VI. 결론

Intifāda and Palestinian Literature

Song, Kyung Sook
HUF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sponse of Palestinian literature to the intifāda during the first four years, as reflected in the three main genres: poetry, short stories and novels.

This intifāda literature is an immediate response to events and it appeals to the readers' emotion directly, with poetry comprising the major part of it.

With few exceptions, Palestinian literature of the intifāda continues to be field with slogans and stereo types. In a word, the literature of intifāda can be characterized as deterritorialized literatures which tend to share the three aspects: 1) Political immediacy of the writings 2) A collective value 3) National identity.

I. 서론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며 문학은 전쟁과 더불어 시작되어 전쟁이라는 것줄을 통해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아랍 세계의 경우에는 전쟁과 문학이 그 어떤 지역에서 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 까닭은 가축이나 목초지, 우물을 둘러싼 각 부족들간에 끊임없는 전투를 벌여야 했던 이슬람이전 시대로부터 이슬람 정복 전쟁, 중세 십자군 전쟁,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수 없는 전화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아랍 문학의 기원을 살펴보면, 5세기 말엽에 일어났던 바수스(Basūs)전쟁을 둘러싸고 아랍 최초의 시가가 읊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쩌면 아랍 문학의 슬픈 운명을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랍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인생의 학교였으며, 시는 일찍이 화살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었고 시가는 전쟁을 비롯한 부족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그 어떤 문학에서보다 아랍 문학사에서는 전쟁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또한 전쟁은 현대 아랍 문학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왔다. 1948년 제 1차 중동전과 이에 따른 팔레스타인의 패망은, 오랜 세월 고유의 정형성에 갇혀있던 아랍시가 자유시로 변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7년 6일 전쟁에서의 패전의 충격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아랍 세계의 문인, 지식인들을 강타하였고 환타지문학, 부조리문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6일 전쟁은 아랍 여성 문학의 경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가부장적 이슬람 사회에서 남성을 여성의 '적'으로 돌리고 여성 개인의 정체성만을 탐구하는데 골몰하던 50, 60년대의 아랍 여성 문학이 민족적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을 함께 아우르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족 해방 없이 여성 해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히 팔레스타인 문학에서는 6일 전쟁을 계기로 소설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그 까닭은 현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데는, 지금까지 아랍인들이 선호해왔던 시가 문학의 한정된 틀보다는 소설이 보다 효과적임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에 와서, 역사적으로 아랍인들의 문학적 얼굴이 되어왔던 시가 문학과 소설 문학이 서로 자리바꿈을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최근 몇 달 동안 TV화면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인티파다의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작금의 상황을, 인티파다가 아니라 전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탱크에 맞서 돌멩이를 든 팔레스타인의 아이들... 이스라엘 군인의 총에 죽어 가는 아들 앞에서 통곡하는 팔레스타인의 어머니들... 순국자의 장

례식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여인들... 필자는 팔레스타인 문학 전공자로서 이러한 인티파다 상황이 문학에서는 어떤 양태로 드러나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인티파다는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 인티파다 문학에 대한 연구도 아랍 세계에서조차도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필자가 인티파다 문학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성급한 욕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하는 바는 아니다. 따라서 본고는 인티파다 문학에 대한 첫 연구로서 그 포괄적 소개와 이해에 그치고자 한다.

먼저, 소위 ‘돌의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팔레스타인의 대규모 민중 봉기인 인티파다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재정립해보고, 이러한 인티파다가 팔레스타인 문학 전반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다시 말해 인티파다에 대하여 문학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시, 단편소설, 장편소설로 나누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인티파다의 첫 3,4년 기간에 나온 작품들을 주로 다루겠지만 그 이전에 인티파다를 예고한 작품도 가능하다면 연구대상으로 할 것이다.

II. 인티파다 : 돌의 전쟁

인티파다 Intifadah는 아랍어로 떨림, 동요, 전율 등을 의미하는 말로서, 민중봉기를 뜻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아랍의 현대사를 살펴보면 많은 인티파다가 있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하면, 1987년 12월 이후 오늘날까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대규모적인 팔레스타인 민족 봉기를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인티파다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지만, 1991년 1월 걸프전이 발발하면서 인티파다의 열기가 급격히 냉각된 점에 비추어, 인티파다라고 하면 1987년 말부터 약 3년을 중요한 시기로 잡는다.

흔히 ‘돌의 전쟁’이라고 말해지는 인티파다는 1987년 12월 9일 가자지구의 칸 유니스 Khān Yūnis 난민촌에서 왈리드 아부 싄림 Walid 'abū Salīm이라는 11세 소년이 이스라엘 군의 싄탄을 머리에 맞고 사망한 사건을 발단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앞서 1987년 10월 6일 이슬람 지하드 멤버들이 이스라엘 감옥을 탈출한 사건은 인티파다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의 팔레스타인 인티파다는 단기간에 특정지역이나 특정 계층에서 일어났던 종래의 팔레스타인 인티파다와는 사뭇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스라엘 측의 강경진압, 대량검거, 추방에도 불구하고 봉기가 2년여 동안 집중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점,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 동 예루살렘 등 점령지 전역에서 봉기가 일어났다는 점, 어린이, 학생, 여성, 노동자, 상인, 지식인, 농부 등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전 계층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 돌만을 무기로 하여 거의 비폭력으로 이스라엘 탱크에 대항했기 때문에 아랍권은 물론 세계 여론의 동정과 지지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1987년 이후의 인티파다가 이전의 산발적 민족 봉기와는 구별된다고 하겠다.¹⁾

87년 말 이래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티파다는 1925~1927년의 다마스쿠스 인티파다, 1936~1939년의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1954~1962년의 알제리아 혁명의 인티파다에 비견될 수 있으며, 굴종과 억압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아랍인들의 역사적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고 있다. ('ibrahim Khalil, 1990: 26)

87년 말 이래 전개된 팔레스타인 인티파다는 그 동안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요르단의 주권 포기 선언(1988.7.31), 팔레스타인 민족 평의회는 팔레스타인 국가 선언(1988.11.12)등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평화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이는 인티파다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성과는 팔레스타인 사회 내부에 구조적인 인식의 변화를 이룩하였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가장 괄목할 만한 점은 그 동안 가부장적 문화 속에 억압되어 왔던, 청년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발언권의 강화일 것이다. 왜냐하면 인티파다의 중추적 기능을 감당해온 대중조직의 구성원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의 대 시인 파드와 투칸 Fadwa Tuqān(1917~)은 인티파다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다. “매일, 매시간 죽음의 현실을 살고 있는 시민들, 유년을 빼앗긴 아이들, 자신의 미래를 찾으려는 젊은이들이 탱크로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에 대항한다... 이들의 무기는 돌과 조국애와 저항에 대한 불굴의 의지가 전부이다... 인티파다는 팔레스타인 역사에서 그리고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오로지 이스라엘의 점령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팔레스타인 사람이 당하는 억압과 불평등으로부터 풀려나 자유와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Fadwa Tuqān, 1993: 166)

인티파다는 7~14세의 어린아이들에 의해 거의 비폭력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 인티파다가 발생하는 과정이, 인티파다를 다룬 많은 소설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민족투쟁에 연루된 집이 이스라엘 측에 의해 폭파된다... 그 일

1) 1967년 9월, 1974년 11월, 1976년 3월, 1982년 3월, 1985년 9월, 1986년 12월, 1987년 1월 등 이미 일곱 차례에 걸쳐 인티파다로 불리는 팔레스타인 민족 대 봉기가 있어왔다.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티파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는 제 8차 팔레스타인 인티파다인 셈이다.

대에 통행금지가 실시된다... 아이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엄마를 졸라댄다... 엄마는 나를 못살게 굴지 말고 저기 서 있는 저 이스라엘 군인에게 가서 항의하라고 아이들을 달랜다... 아이들은 밖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새총을 쏘거나 돌맹이를 던진다... 이렇듯 인티파다는 아이들과 부녀자들에 의해 거의 비폭력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의 강력한 무력대응은 인티파다를 폭력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1990년 11월 8일 소위 '피의 월요일'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알-악사(al-'Aqṣā)사원의 만행이후, 저항수단은 둘에서 칼이나 총으로 바뀌었다.

이제 인티파다(봉기)는 싸우라(혁명)에 다름아니게 되었던 것이다. “둘은 이제 그만... 물로토프 카테일은 이제 그만... 칼과 총알을 써라...” (Muṣṭafa 'abd al-Ghani, 1996: 48) 이것이 인티파다의 오늘인 것이다.

Ⅲ. 인티파다와 팔레스타인 시

Bouskila는 1987년~1990년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인티파다의 첫 3년의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의 대표적 문예지인 『al-Kātib』과 『al-Karmil』 그리고 비 문예 정기간행물인 『Filastīn al-Thawrah』와 『Balsam』 등에 수록된 작품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Ami Elad-Bouskila 1999: 87-88)

- 인티파다 초기에는 인티파다와 관련된 내용에 우선적으로 지면이 할애되었다.
- 인티파다 시가 산문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게재되었다.
- 인티파다 산문은 시에 비해 등장이 늦어서, 인티파다 첫 해 말에 가서야 나타났고 그 수도 아주 느리게 증가하였다.
- 인티파다 문학은 이스라엘 점령지 밖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문인들보다는, 점령지의 시인 작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 인티파다가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인티파다 문학의 열기가 식기 시작했다.
- 1991년 걸프전이 발발하면서 인티파다보다는 걸프전으로 관심이 옮겨감에 따라 인티파다 문학도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인티파다 동안에 쓰여진 팔레스타인시의 대부분은 - 예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 이슬람 이전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아랍 구전시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간다. 또한

시 쓰기가 소설 쓰기에 비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접근이 수월하다는 일반적 진리를 보여준다.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쓴 것은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 당시가 아니라 그 후 얼마간의 역사적 시간을 산 이후였음을 상기하자. 장편소설의 이러한 특성상 전쟁당시에는 장편소설보다는 시나 단편소설이 더 많이 쓰여지게 마련이다. 2차 대전 중 영국정부가 많은 시인들의 민족적 전투에 대한 시를 활발히 출판한 것도 이 같은 문맥에서 이해 될 수 있다. (Nūrī Hammūdī Al-Qaisī, 1986: 79-80)

팔레스타인 인티파다가 아랍문학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괄목할 만한 학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요르단 대학교의 이브라힘 칼릴 교수는 “그들(팔레스타인 시인들)이 인티파다 때문에 변화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해서 인티파다는 이미 20년 전부터 그들의 시속에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Ibrahim Khalil, 1990: 28)라고 말한다. 칼릴 교수의 말은 인티파다 문학이 종래의 팔레스타인 저항 문학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 좋은 예를 팔레스타인의 여성 시인 파드와 뚜칸에게서 찾을 수 있다. 뚜칸은 다른 많은 아랍의 여성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엘레지를 써왔다. 그러나 1967년 6월 전쟁의 참패이후 그의 시는 강한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뚜칸은 다른 어떤 팔레스타인 여성 작가나 시인보다도 이스라엘 군정 당국으로부터 더 혹독한 검열과 감시를 받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는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전 아랍권에서 상당한 명망을 누리고 있었고 아직도 아랍세계에서는 시문학이 세계의 여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대중적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가 1967년 쓴 「이름의 노래」 ‘unshūdah al-Şairūrah는 거의 20년 전에 이미 인티파다를 정확히 예고하고 있다. (Miriam Cooke & Roshni Rustomji-Kerns, 1994: 236-237, Salmā Khadrā’ al-Jayyūsī, 1997: 335)

이제 갑자기 그들은 커버렸다
 거친 발의 숲에서
 쓰디쓴 가시선인장의 그늘에서
 그들은 커버렸다
 제 나이보다도 훨씬 더
 그들은 커버렸고
 사랑이란 고귀한 단어 속에서 싸웠다
 그들은 가져왔다
 사랑의 글자들을
 속삭이듯 암송하던 성경과 꾸란에서

그들은 헨나 나무처럼 자라났다
 그들이 두건을 쓰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해바라기 꽃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무너뜨리고 새로 쌓는
 저항의 목소리
 봉쇄당한 지평선가로 분노는 타오르고
 교실로, 거리로, 시가지들 휩쓸며
 광장에 모여들어
 음울한 탱크를 돌 세례로 맞는다...

이 시는 이스라엘 탱크에 돌로 맞서는, 제 나이보다 옷자라 버린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저항의 모습을 묘사한다. 이 시는 인티파다가 돌을 든 아이들에 의해서 일어날 것을 예견한 예언자적 작품으로 그 중요성이 많은 이들에 의해 인정되었다.(Mirim Cooke, 1996:196)

사하르 칼리파는 1979년 자신의 소설 [해바라기]의 제사(題辭, epigraph)로 이 시의 일부를 싣고 있다. 이는 저자가 대 시인의 시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인티파다 시는 50년대이래 계속되어 온 팔레스타인 정치시, 저항시의 성격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점령지의 현실과 민족투쟁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집단적 정서를 고양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간결한 표현, 명확한 이미지, 동일한 어휘와 리듬의 반복, 유사한 각운 등이 사용된다.(Thābit 'abd al-Razzāq al-'alūsī, 1999: 14)

싸미흐 알 까심의 “읽지 못하는 점령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Risalah 'ila Ghujat La Yaqra'ūna)” 는 위에서 언급된 인티파다 시의 주된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준비하라 ...나아가라
 그대들 위의 하늘은 모두 지옥
 그대들 아래 땅은 모두 지옥
 나아가라
 우리 중엔 아이도 노인도 죽어간다
 굴복치 말며
 엄마는 죽은 자식들 위에 쓰러진다
 굴복치 말며
 나아가라...

그러나 모든 인티파다 시들이 직접적인 정치적 연설의 어조를 띄는 것은 아니다. ‘문제, 혹은 상황’ 과 ‘예술’ 의 아름다운 화해를 우리는 마흐무드 다르위 시에게서 쉽게 조우할 수 있다. 그의 시 「지나가는 말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ābirūna Fī Kalām ‘ābir” 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위의 책, 17-18)

.....

지나가는 말속에 지나가는 이들이여
 그대들의 이름들을 들고 가버리게나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훑쳐가게나
 그대들은 알게 될 걸세
 우리 땅의 돌이 어떻게 하늘의 지붕을 짓는 가를
 그대들은 결코 알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대들에겐 칼이, 우리에게엔 우리의 피가
 그대들에겐 강철과 불이, 우리에게엔 우리의 살이
 그대들에겐 탱크가.. 우리에게엔 돌맹이가
 그대들에겐 가스폭탄이.. 우리에게엔 비(雨)가...

.....

시인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결코 역사적 연속성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지나가는 사람들’ 로 은유하고 있다. 또한 시인은 피와 살과 돌맹이 그리고 평화의 비로 점령자 이스라엘의 무력에 맞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그의 또 다른 장시 “나르시스의 비극과 은의 익살 Ma’sāt al-Narjis wa Malhāt al-Fiḍḍah” (Maḥmūd Darwīsh, 1994: 50-74)의 일부를 보기로 하자.

.....

그들은 돌아왔다
 긴 터널의 끝에서 자신들의 거울에게로
 그들은 돌아왔다
 그들이 형제들의 소금을 다시 회복할 때, 혼자서 혹은 여럿이서, 그들은 돌아왔다

성채를 지키는 전설로부터 소박한 언어에게로
 이젠, 설사 원한다 해도, 기적을 위해 손이나 깃발을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돌아왔다. 자신의 존재의 물로 잔치를 벌이며, 이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아들딸들을 혼인시키기 위해
 대리석 속에 숨어 있던 몸으로 춤추기 위해
 겨울을 보내기 위해 양파와...
 밤야와 마늘을 천장에 매달기 위해
 그들은 돌아왔다...

.....

20여 쪽이 넘는 이 대 서사시를 통하여 시인은 귀향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나직한 어조로 풀어내고 있다. 언젠가 와야할 귀향의 그날을 시인은 이미 그의 시에서 성취시키고 있다. 완료시제의 언어로서...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양파와 밤야(아욱과의 식물)와 마늘... 을 천장에 걸어두고 겨울을 맞는다... 시인은 모든 것을 말하려 하지 않으며, 생각하고 음미할 많은 부분을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준다.

다르위시의 작품처럼 인티파다 시가 높은 예술성을 지니는 경우는 흔치 않다. 아무래도 인티파다 시의 주류는 감옥이나 수용소의 경험 등 저항의 일상을 열편 웅변조의 시어를 통해 토로하는 수준이라고 믿어진다. 요컨대 경험의 요구에 시의 수준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전문적인 시인의 작품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고 구어체 시도 많이 눈에 띈다.

인티파다 시의 키 워드는 ‘인티파다’, ‘순국자’, ‘사상자’, ‘아이들’, ‘돌’, ‘돌의 아이들’, 예루살렘, 하이파, 야파 등 팔레스타인의 지명, 안사르 ‘Ansār나 네게브 등 수용소나 감옥의 이름들이다. (Ami Elad-Bouskila, 1999: 90)

아랍세계에서는 일찍이 이슬람 이전 시대부터 시가 무기화 되었다. 그러나 인티파다 시에서는 시의 언어가 마치 대포의 탄알처럼 느껴진다. 그러기에 시는 인티파다 초기부터 가장 많이, 시인이 아닌 일반인들에 의해서까지 쓰여지고 발표되었던 것이다.

인티파다 시는 팔레스타인 시인뿐만 아니라 시리아, 이라크 등의 아랍 시인들에 의해서도 많이 쓰여졌다. 특히 ‘여성의 시인’ 이라고 불리던 시리아의 니자르 깡바니 Nizār Qabbānī 는 1967년 패전이후 본격적인 정치시인으로 변모하였다. 그는 생애 말기에 「돌의 화학에 관한 명예 박사 학위」 Duktūrah Sharaf Fī Kimiyā’ al-Ḥajar, 「성난자들」 al-Ghādībūna, 「돌의 아이들」 ‘atfal al-Ḥajāra 등의 많은 인티파다 시를 남겼다. (Fa’ij al-‘iraqi, 1998: 9-15)

IV. 인티파다와 팔레스타인 단편소설

인티파다에 관련된 산문은 시에 비해서 그 등장시기도 좀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양도 적은 편이라는 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인티파다를 다룬 장편소설보다는, 단편소설이 더 일찍이, 다수가 눈에 띄는 것은 장르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먼저 인티파다 단편소설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팔레스타인 내의 단편소설은 이미 1960년대 초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주로 작가 아민 순나르 'amin Shunnār가 발행하던 잡지 『새 지평』 'al-'ufq al-Jadid이 단편 작가들에게 지면을 제공하고 있었다. 아민 순나르가 죽고 1966년이 잡지가 정간된 이후로는 신문 『등대』 'al-Manār나 잡지 『사상』 'afkar이 그 역할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1967년 이전까지 가자지구에서는 이렇다 할 팔레스타인 문인들의 문학 활동이 없었고, 당시에 가자지구에서 발행되던 많은 이집트 신문들은 이집트 작가에게만 발표기회를 주었다.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언론이 등장한 것은 1965년에 신문 「팔레스타인 뉴스」 'akhbār Filastīn가 처음이었고 이 신문을 통하여 팔레스타인 작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이미 『새 것』 'al-Jadid과 『연합』 'al-'ittihād이 발행되고 있었지만 팔레스타인 서안이나 가자지구까지는 이 신문들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면은 더욱 한정되었고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6월 전쟁의 여파로 마흐무드 샤프르 Maḥmūd Shafīr, 야흐야 야클루프 Yahyā Yakhluḥ, 라샤드 아부 샤휌 Rashād 'abū Shāwir 등 많은 문인, 작가들이 팔레스타인을 떠나가 버림으로써 1948년 1차 전쟁직후에 일어났던 문화적 진공 상태를 또 다시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1968년 신문 「예루살렘」 al-Quds이 발행되었을 때는 지방 문인들의 부재로 인하여 그 지면을 채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신문의 문학 편집자가 “모든 문인들은 떠나가 버렸는가”라는 글을 게재할 정도로 아랍 문인들은 팔레스타인을 떠나갔거나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Nuhā Maḥmūd, 1994: 5)

그러나 인티파다가 시작된 직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많은 단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인티파다 단편소설의 첫 수확으로는, 나빌 아우다 Nabil 'awdah의 「장애」 'al-Ḥājjiz(1987)와 「새로운 세월」 'al-Zaman al-Jadid(1988)과 「불임의 세월은 끝나고」 Nihayah al-Zamān al-'Āqir(1988), 무스따파 미라르 Mustfa Mirār의 「과자 접시」 Tabaq al-Ḥalwā(1988), 나비흐 까심 Nabīh al-Qāsim의 「우린 것밭을 갖게 될 거야」 wa Takūnu Lanā Rayah(1988), 싸이드 닷파아 Sa'īd Naffa'의

「아침은 베일을 벗고」 Ṣabah...ba'da Inhisār al-Ghiṭa'(1988), 무함마드 나파아 Muḥammad Naffā'의 「장군」 al-Jinīrāl(1988), 자말 반누라 Jamāl Bannūrah의 「베일을 쓴 사람들」 al-Mulaththamūna(1989)등을 꼽을 수 있다. (Muḥammad Tawfiq al-Ṣawwāf, 1997: 19-138)

위의 단편소설들이 다루는 주요 주제는 무엇보다도 인티파다의 자발성과 불가피성이다. 시오니스트들의 인종차별, 강제 추방, 구금과 투옥과 고문은 점령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평화공존이 헛된 희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켰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정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고통은 모든 계층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간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티파다의 촉발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또한 인티파다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지속의 당위성 또한 점령지의 인티파다 단편소설이 보여주는 큰 주제의 하나이다. (위의 책, 75-107)

인티파다 단편소설의 소재는 감옥생활의 경험, 책 대신 돌을 든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고통스런 난민들의 삶, 학업을 계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운 젊은이들, 낮은 보수에 허덕이는 노동자, 가계를 짊어지고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면서 이스라엘의 억압은 물론, 여성을 차별하는 아랍 팔레스타인의 전통과 가치관과 사회제도의 억압이라는 다중의 굴레에 허덕이는 여성들의 질곡 등 다양하다.

인티파다 단편소설에서는 특히 사건이 전개되는 장소가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된다. 이러한 장소적 배경의 강조는 팔레스타인 사람과 팔레스타인 땅의 연대감과 일체감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단편소설의 무대는 감옥, 수용소, 난민촌, 시골 마을, 순찰구역, 묘지, 유대인 정착촌 등이 많이 등장한다. 난민촌이 제일 중요한 배경이 되는 까닭은 난민촌이 단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캠프가 아니라 잃어버린 향토의 대체물로서, 고통과 비극의 현장에서 인티파다의 불꽃이 바로 이 난민촌에서 타오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감옥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은 작가들이, 밖에서 보다 감옥 안에서 생애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소년들에게는, 고문과 온갖 비인간적 처우에 시달리는 감옥과 수용소야말로 성인으로 가는 성숙을 일궈내는 '학교'로 간주될 정도이다.

인티파다 단편소설이 보여주는 인물들은 매우 다양하다. 어린이, 노인, 젊은이, 여성, 학생, 노동자, 기회주의적인 부르주아, 지식인, 이스라엘에 협력하는 부역자, 중무장한 이스라엘 군인, 이스라엘 정착촌의 유대인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특정한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사건 속의 모든 민중이 집단적으로 주인공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인티파다가 대규모의 대중적 민족봉기임을 감안할 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Nuha Mahmūd, 1994: 133-134)

이와 같이 인티파다 단편소설의 여러 특징들은 인티파다 시의 특징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모호성이나 복잡성을 배격하고 명확하고 직접적인 언술을 선호한다. 민족적 유산에 큰 관심을 가지며 특히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인물들을 새롭게 조망함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지평을 확대한다. 종래의 팔레스타인 저항문학의 세계를 계승하면서도 보다 발전적으로 확장해간다. 소설의 언어는 좀 복잡한 양상이다. 물론 표준 아랍어로 서술되지만 구어체가 많이 섞여 나온다. 구어체의 잦은 사용은 등장인물들인 대중의 교육 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텍스트로 하여금 살아 있는 현장감을 갖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팔레스타인 구어체 아랍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감옥의 간수들이나 군인등 유대인들과의 조우가 빈번한 까닭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인티파다 단편소설 역시 시의 경우처럼 예술적 형상화보다는 현실과 역사적 사건의 기록에 치중되는 감이 있다. (위의 책, 14)

V. 인티파다와 팔레스타인 장편소설

팔레스타인 문제는 오늘날 아랍국가들이 정치적·외교적으로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사안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의 시오니즘 투쟁과 희생의 최전선에 내몰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소설들은 놀라울 정도로 팔레스타인의 비극을 외면하고 등한히 해왔다. 팔레스타인이 아닌 아랍권에서 나온 소설로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은 아주 드물다.

1960년대 초 시리아 출신의 할림 바라카트 Ḥalīm Barakāt(1936~)가 쓴 『6일』 Sittat 'ayyam이 이 분야의 최초의 장편소설이다. 그후 『국경너머 집』 Bayt warā' al-Ḥudūd, 『팔레스타인에서 온 처녀』 Fatāt min Filastīn이 요르단에서 나왔을 뿐이다. 타 아랍국들에 비하여 소설의 출현이 늦었던 걸프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알제리의 경우는 알제리 해방전쟁 때문에 미처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룬 소설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서구적 문학양식인 소설의 이입이 빨랐던 시리아나 이집트의 경우도 팔레스타인의 비극을 다룬 장편소설은 80년대 이후에 가서야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Muṣṭafā 'abd al-Ghanī, 1996: 38-39)

따라서 인티파다 소설 역시 - 인티파다 시의 경우 타 아랍국가 시인들의 참여가 활발한데 반하여 - 팔레스타인 작가들, 특히 점령지의 팔레스타인 작가들에 의하여 주도될 수밖에 없었다.

인티파다를 다룬 장편소설도 시나 단편소설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민족문학·저항문학·민중문학·상황문학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브라 이브라힘 자브라(1919-1994), 자산 카나파니(1936-1972), 이밀 하비비(1921-1996)등의 6,70년대의 소설들이 인티파다 장편소설의 뿌리가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시나 단편소설에 비하여 장편소설은 장르의 특성 때문에 인티파다 기간 중에 가장 뒤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장편소설은 그 어떤 문학형태보다도 더욱 구체적이며 다양하게 인티파다를 형상화하고 있다.

먼저 인티파다를 직접적으로 예고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장편소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작가 사하르 칼리파 Saḥar Khalifāh(1942~)의 연작소설 『가시선인장』 al-Ṣabbār(1976), 『해바라기』 ‘abbād al-Shams(1980) (줄고 「팔레스타인 여성작가 사하르 칼리파 연구」 참조), 현재 베르 제이트 대학의 영문학 교수로 있는 아흐마드 하르브 ‘aḥmad Harb의 두 번째 소설 『이스마일』 ‘isma’īl(1987, 예루살렘), 여성작가 라일라 알-아뜨라쉬 Lailā al-‘aṭraṣh의 『해가 서쪽에서 뜨다』 wa Tushriq Gharban(1987, 베이루트)등을 인티파다를 예고한 대표적인 장편소설로 꼽을 수 있다. (‘ibrahīm Khalil, 1991: 6)

『이스마일』과 『해가 서쪽에서 뜨다』는 고도의 예술성을 갖춘 소설들이다. 종래의 팔레스타인 저항방식이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인티파다의 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두 소설의 공통적인 메시지이다. 『이스마일』에서 주인공 이스마일의 입을 통하여 작가는 인티파다를 예고한다. ‘우선은 총이야. 복수는 복수야. 위대한 알라의 이름으로 땅을 위하여 복수할 것을 맹세해. 이론. 정당화... 그런 건 이제 그만하면 됐어. 우리의 아이들은 살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한 거야... 파업이라고? 파업은 땅을 되돌려 주지 못해. 파업으로는 땅을 회복할 수 없어... 적은 총의 언어만을 이해하고 있어...’ (‘ibrahīm Khalil, 1990: 12)

이제 인티파다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팔레스타인 점령지내의 장편소설들을 살펴보자. 상당한 문학성을 갖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무함마드 와타드 Muḥammad Watad의 『인티파다의 환호』 Zaghārid al-Intifāḍah(1989, 니코시아), 샤하타 라디 Shahātah al-Rādī의 『메뚜기는 수박을 좋아한다』 al-jarād Yuhibb al-Baṭīkh(1990, 카이로), 사하르 칼리파의 『바웃 싸하』 Bab al-Sāhah(1990, 베이루트)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바웃 싸하』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인티파다와 여성의 관계를 다룬 소설 『바웃 싸하』는 그녀의 첫 전쟁 소설인 『가시선인장』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남성들의 저항 전략의 한계를 비판하고 남성 주

도의 혁명이 희망이 없음을 보여준다. 인티파다 이전에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혁명 세력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팔레스타인에 남아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남성들의 선택의 전부였다. 인티파다 이후에는 결과에 관계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보복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칼리파는 이 소설에서 두 가지 방법 모두를 비판하면서 민족 투쟁의 여성적 방법을 제시한다. 여성적 투쟁은 적을 인정하고 적의 휴머니티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여성들은 무기도 없이, 냄비를 들고 싸웠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옥설을 퍼부었고, 잠옷 바람으로, 흐트러진 머리채로 군인들과 맞섰다.’ (Khalifa, 1990: 135)

이 소설의 시간은 인티파다의 역사적 시간이며 현재 인티파다가 일어나고 있는 요르단 강 서안 나블루스 시의 서민들의 광장인 Bab al-Sahah (실제이름)가 작품의 무대이다.

작가는 창녀, 사회연구가, 산파인 세 사람의 여성 인물과, 인티파다 과정에서 부상당하여 창녀의 집에 은신하고 있는 한 젊은이를 통하여, ‘인티파다가 여성의 삶에 무엇을 가져 왔는가’ 라는 명제를 추적한다. ‘지금까지 그들이 당해야 했던 온갖 근심 걱정과 고통은 변치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수없이 많은 새로운 고통들이 추가되었을 뿐’ (Khalifa, 1990: 20,73,126)이라고 주인공은 말한다. 인티파다는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눈물을 가져왔을 뿐, 여성의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성 범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태도, 규범은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작가의 시각이다.

칼리파는 이스라엘 군정하의 점령지에서 인티파다의 현실을 살고 있는 작가이다. 점령지의 작가가 그들의 오늘의 현실을 텍스트로 만들 때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검열 통과와 예술적 거리(distance)의 확보라는 문제이다. 많은 작가들, 특히 인티파다 이후, ‘오랜 세월 마음속에만 묻어 두었던 목소리를 텍스트화 하기 시작’ 여성 작가들이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고, 설사 검열에 통과되었다 해도 출판사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칼리파의 역량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작가가 사건과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그가 객관적 관점을 획득하는데 요긴한 요소일 수 있다. 그러므로 칼리파의 경우 인티파다 속에 살면서 인티파다에 대해 쓴다는 것은 문학과 현실의 장벽을 허물려는 시도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획선이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가’ 라는 사실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칼리파는 “명확한 관점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경험과는 달리 인티파다는 당장 기록될 필요가 있다.”, “나는 바로 여기 오늘의 이야기를 쓴다” 라고 밝히고 있다. (Miriam Cooke, 1996: 315)

칼리파의 모든 소설들은 그녀가 낳고 자란 나블루스시를 무대로 하여 여성의 점증하는 정치 참여와 그 효과를 추적한다. 민족주의자들과 여성 운동가 사이의 긴장을 상기시키면서, 그녀는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행위를 이름 짓고, 통제 하며, 확장해 나가게끔 보여준다. 칼리파 소설의 중요성은 역사적 순간들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된다는 사실과 이 작품들이 사회와 소설 형태에 대하여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질적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인티파다 장편소설의 예술적 특징은 단편소설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영웅담이나 민담, 꾸란의 이야기, 민요, 속담 등 민족적 문학유산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언어에 있어서는 문어체 표준 아랍어가 아닌 팔레스타인의 구어체 아랍어가 획기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 작중 인물들은 집단화하는 경향이 많고 소설의 장소는 이야기의 무대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아랍·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민족적 일체감과 정체성을 창출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인 장치로 작용한다. (Muṣṭafā 'abd al-Ghanī, 1996: 45-48)

VI. 결론

인티파다가 팔레스타인 문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문학이 생산한 많은 작품 수에 비하면 전문적 비평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티파다 문학의 수준이 낮다거나, 혹은 인티파다가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적 거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기인한다기보다는, 팔레스타인 문학 자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팔레스타인의 정치나 역사에 대해서는 아랍권이나 서구 학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에 반하여 팔레스타인 문학에 대한 연구는 정당한 평가와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다. 인티파다 문학에 대한 비평적 연구의 부족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인티파다 문학은 기본적으로 민족문학, 저항문학, 민중문학, 상황문학, 피지배 문학으로 규정될 수 있는 지금까지의 팔레스타인 문학의 연장선상에 있다. 팔레스타인 문학은 독자의 감정에 의식적으로 호소하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강한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족적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이면서도 명백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이는 것 또한 팔레스타인 저항 문학의 성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팔레스타인 문학의 특징이 인티파다 문학에서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감옥이나 수용소에서 겪은 개인적 경험을 텍스트화 해보려는 욕구 때문에 비전문가들의 참여도 높다. 따라서 인티파다 문학은 슬로건이나 스테레오타입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개인적·민족적 고통과 열망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라는 점에서는 가치가 높지만 문학성은 그리 높지 못하다. 이러한 사실은 작가들이 민족문제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티파다 문학을 장르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시가 제일 먼저 등장하였고 양적으로도 가장 많았다. 이는 시에 대한 아랍인들의 '수월한 접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장편소설은 가장 늦게 나타났지만 인티파다 상황을 가장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인티파다 문학은 - 장르에 관계없이 - 민속유산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는 팔레스타인 구어체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살마 카드라 자이유시는 이른바 피지배 문학(deterritorialized literatures)의 특성으로 정치적 긴급성, 집단적 가치, 민족적 정체성을 거론한다. (Salmā Khaḍra 'al-Jayyūsi, 1992: 67-68)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문학이 바로 이러한 피지배 문학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인티파다 작품들이 문학적 진실이나 작품 쓰기보다는 역사적 진실이나 역사 쓰기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소설은 역사가 쓰지 못하는 역사'라는 나길 마흐프즈의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참고 문헌

- 김윤식. "소설구성의 원리와 중심적 인물로서의 여성 - 한국 근대소설의 경우", 한국문학, (주)한국문학사, 1999.
- 바라카트, 하림. 六日間,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 송경숙. *자산 카나파니 研究 - 팔레스타인 民族解放運動의 文學的 反映*.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1992.
- 송경숙. "팔레스타인 여성작가 사하르 칼리파 연구 -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인식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제 4권 제 2호,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1995.

- 송경숙. "The Writing of Sahar Khalifah: from Margin to Centre", *Annals of Japan Association for Middle East Studies*, No. 15. Tokyo, 2000.
- 송재욱. 팔레스타인 정체성의 공고화 과정과 이스라엘 점령지 문제인식변화 - 인티파다(Intifada)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6.
- 이리나 글루센코. "서구 페미니즘과 우리", *창작과 비평*. 제 24권 제 4호 (1996).
- 'abd al-Ghani, Muṣṭafā. "Riwayah al-'intifāḥah", *Shu'ūn filasṭīniyah*. No. 235-237 (1996).
- 'afūnah, Nuḥā Mahmūd 'abd al-Rahmān. *Qisas al-'intifāḥah fī filastīn al-Muhtallah*. (M.A Thesis), Amman: Jordan University, 1994.
- al-'alūsī, Thābib 'abd al-Rajjāq. "al-'intifāḥah fī al-Shi'r al-'arabī", *al-'ādāb*, 1991, 1-3. Beirut.
- al-'irāqī, fā'ij. *Shi'r al-'intifāḥah Fī al-Bu'dain al-Fikrī wa al-Fannī*, Damascus: 'ittihād al-Kuttāb al-'arab, 1998.
- al-Khaṭīb, Hisām. *Dilāl Filasṭīniyah al-'adabīyah*, Dāirat al-Thaqafah Munazamat al-Tahrīr al-Filasṭīniyah, 1990.
- al-Qaisī, Nūrī Hammūdī *Shi'r al-Ḥarb, ḥattā al-Qarn al-'awwal al-Hijrī*, Beirut: Maktabah al-Nahḍah al-'arabīyyah, (1986).
- al-Shanābulah, Nisrīn Muhammad 'atā. *Riwayāt Sahar Khalīfa*. (M.A Thesis). Amman: Jordan University, 1993.
- al-Ṣawwāf, Muhammad Tawfiq. *al-'intifāḥah Fī 'ada al-Waṭan al-Muhtall*, Damascus: 'ittihād al-Kuttāb al-'arab, 1997.
- Bouskila, Ami Elad. *Modern Palestinian Literature and Culture*, London and Portland: FRANK CASS. 1999.
- Cook, Miriam. *Woman and The War Story*,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 Cook, Miriam & Kerns, Roshini Rnetomj: ed. *Blood into Ink - South Asian and Middle Eastern Women Write War*, Boulder, San Francisco, Oxford: Westview Press, 1994.
- Darrāj, Fayṣal. "Dirāsah Fī Riwayah Sahar Khalīfah: Qawl al-Riwayah wal-Wāqī", *Shu'ūn Filasṭīniyah*, No. 3. (1981).
- Darwīsh, Muḥmūd. *Diwān Muḥmūd Darwīsh, Vol. 1.2*, Beirut: Dār al-'awdah, 1994.
- Daud, Mikhail Ashrawi Hanan. *The Contemporary Literature of Palestine*

- Poetry and Fiction*, University of Virginia, (Ph.D.) 1982
- Haṭīnī, Yūsif. *Mukawwanāt al-Sard Fī al-Riwāyah al-Filasṭīniyah*, Damascus: 'ittihād al-Kuttab al-'arab, 1999.
- Jayyūsī, Salma Khadrā'. *Modern Arabic Poet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
- Khalīfa, Saḥar. *al-Sabbār*, Beirut: Dār al-'adāb, 1976.
- Khalīfa, Saḥar. *'abbād al-Shams*, Beirut: Dār al-'adāb, 1980.
- Khalīfa, Saḥar. *Bāb al-Sāhah*, Beirut: Dār al-'adāb, 1990.
- Khalīl, 'ibrahīm. *al-'intifāḍah al-Filasṭīniyyah Fī al-'adab al-'arabi*, Amman: Dār al-Karmil, 1990.
- Khalīl, 'ibrahīm. "'alā Hadd al-Saif - Dirāsah Fī 'adab al-'intifāḍah al-Filasṭīniyah Fī al-Dakhil", *al-'adāb*, 1991, 1-3 : Beirut.
- Maṭar, Jamil. "'ithna 'ashar Shahr 'alā Thawra al-Hijārah", *al-Hilal*, 1988, 12.
- T. Zeidan, Joseph. *Arab Women Novelists : The Formative Years and Beyond*,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5.
- Tuqān, Fadwā. *al-Rihlah al-'aṣ'ab*, Amman: Dār al-Shurūq Linnashr wa al-Tawjī', 1993.
- Yāqhi, 'abd al-Rahmān. *Fī al-Naqd al-Taṭbīqī Ma'a Riwayāt Filasṭīniyah*, Amman: Dār al-Shurūq Linnashr wa al-tawjī', 1999.